

1과 평화의 시작

우리는 존귀하고 평등합니다

창세기 1:26-28; 시편 8:4-5

1. 마음열기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6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위의 영상을 함께 시청해 봅시다. 위 영상에서 지난 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이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험겨운 여정과, 또 남한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겪게 되었던 차별과 편견의 경험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위 영상 속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와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나눠 봅시다.

먼저 탈북 청소년들의 경험을 통해 탈북의 과정과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남한 사회 내의 탈북민들 문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거대담론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외치기도 하지만, 정착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냉랭하고, 무관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함을 상기하

도록 하는 것이 본 마음 열기의 목적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다른 한 쪽은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곤 합니다. 분명히 북한 주민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이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정의하면, 여기서 차별과 편견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는 바로 우리와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데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영상은 탈북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험했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생사를 넘는 탈북의 경험들, 그리고 탈북 학생들과 남한의 학생들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차별과 편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난 다음, 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3개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과 편견, 그리고 무관심의 모습을 환기하고, 평화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재의 첫 과를 열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눔으로 교재 전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즉 평화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영상 속의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주고받은 말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들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한 학생의 말은 통일이 두 국가의 물리적인 결합 이상의 본질적인 사람들 사이의 연합과 공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탈북 청소년들의 편견과 차별의 경험을 통해 우리 생각과 시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렌즈를 통해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게 하고,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본 교재 전체를 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차별과 편견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이 질문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은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이들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름을 인정

할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통일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통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생각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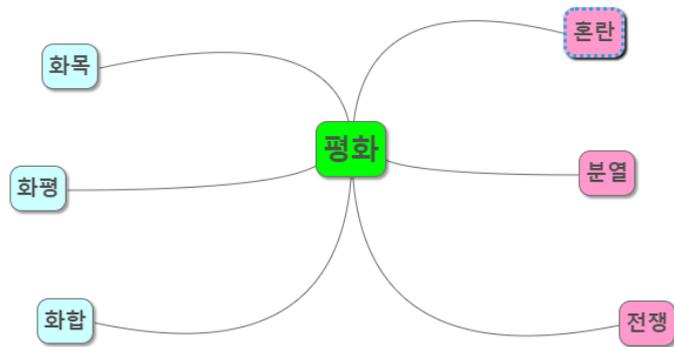
“평화”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평화와 비슷한 단어들을 왼편에, 그리고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들을 오른편에 넣어 봅시다.

유의어	평화 平和 (관계성)	반의어

위 표에 넣은 단어들을 갖고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봅시다.
우리가 넣은 단어들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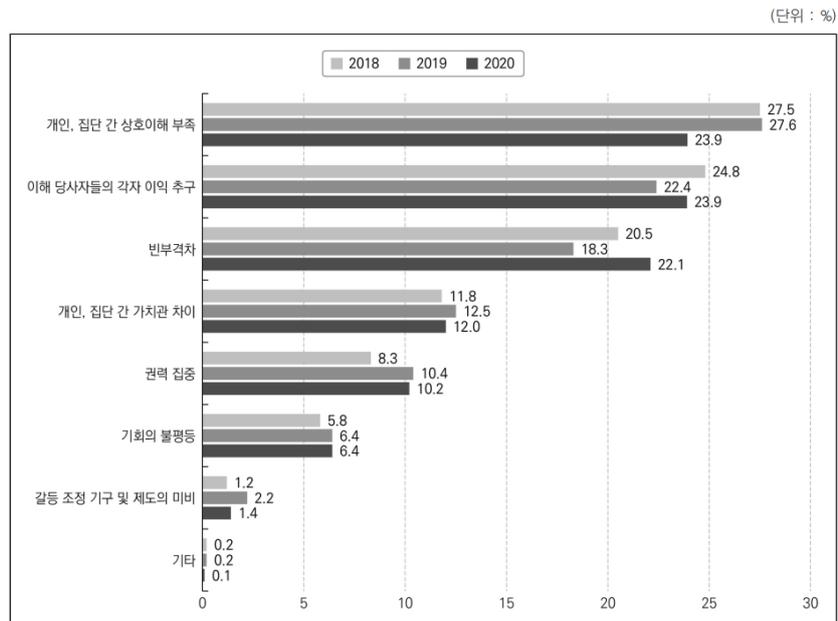
생각 쌓기에서는 평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평화”라는 말 그 자체는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평화”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 그리고 반대되는 단어들을 떠올려 보고 이 단어들을 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나름대로 정리한 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평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와 유사한 단어들인 “화평”, “화합”, “화목” 등으로 제시되고 있고, 반대되는 단어들은 “혼란”, “분열”, “전쟁” 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평화란 다른 이들과 화합하고 연합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평화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상호간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평화는 근본적으로 “상호간의 관계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교재에 제시된 아래의 그림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 갈등의 원인 인식”에 설문 조사 결과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림 III-54] 사회갈등의 원인 인식 차이



주 : 1순위 응답 비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스스로 갈등의 근본 원인이 상호간의 이해 부족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호간의 이해 부족과 이기심은 곧 차별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 평화를 깨는 모습임을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 지 질문하게 합니다.

1) 평화의 문자적 의미

먼저, 평화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평화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平 : 균형

和 : 어우러짐

위 한자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평화란 서로가 균형을 이루어 함께 어우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2) 마음의 통일

그러나 우리가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물리적인 통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통일입니다.

3) 관계성 - 평등, 존중, 이해

평화는 그 단어 자체가 잘 표현해 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의 동등하고 조화로운 "관계성"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의 주요 갈등이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기심,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함에서 발생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평화라는 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와 그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평화의 중요한 방향성을 생각해 봄으로 진정한 화합과 통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평화의 문제가 단순히 체제나 물리적인 공간의 결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동질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환경과 이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계적인 화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고유한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즉, 본 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평화의 첫 번째 단계는 나와 다른 이들 모두가 동등하게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3. 말씀 속으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말씀은 인간 창조의 중요한 두 속성, 즉 평등하고 존귀한 인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성경 말씀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1) 창세기 1:26-28 (존재, 평등)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6-28)

- 위 창세기 본문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은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음 받은 존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계급이나 구분도 없습니다. 즉,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는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는 인간이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2) 시편 8:4-5 (가치, 존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4-5)

- 위 시편 본문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 8편은 놀랍게도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못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트(בַּיָּמִים)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몇몇 번역본과 신약의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 칠십인역의 번역을 따른 것인데, 칠십인역 번역자의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기록을 불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매우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용 교재에서 인용된 창세기와 시편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바로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대조되는 당시 주변 세계의 인간관이 어떠한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 수메르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Epic of Atrahasis)는 인간 창조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땅의 신 엔릴(Enlil)은 하위 신들은 이기기(Igigi) 신들에게 노역을 부과했다. 이들은 강과 독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이기기 신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강제 노동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신들의 현명한 모사 엔키(Enki)는 이 반란을 처벌로써 다스리기 보다는 이기기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신들의 회의에서 받아들여졌고 벨렐-일리(Belet Illi)라는 산파신이 이 일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진 신의 살과 피와 함께 진흙을 이겨서 노동을 감당할 존재를 만들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고대 시대에 신화는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화가 가르쳐 주는 세계관을 받아들여, 자신들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위 아트라하시스 서사시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관은 바로 인간이 “노예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거나 지위가 낮은 인간들은 쉬는 날도 없이 평생동안 일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은 수 천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예신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입장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조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식”에 대한 언급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 단위 시간 개념의 기준이 됩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과 모양, 그리고 천체의 순환으로 계산되는 일, 월, 사계, 그리고 1년 등의 시간 개념과는 분명히 차별되는 안식일은 쉴 새 없는 노동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안식”이란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종교적인 법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쉼”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kimsbible.com/wp/archives/487>

<http://kimsbible.com/wp/archives/495>

3) 파스 로마나 vs 예수님의 평화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절대적인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바로 파스 로마나(Pax Romana)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은 계급 제도를 만들었고, 수많은 노예들의 강제 노역의 기틀 위에 유지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존엄성을 박탈당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울뿐인 제국의 평화를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파스 로마나(Pax Romana)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평안)는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허울뿐인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치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에 담긴 인간 이해와 한반도의 공유 가치를 담고 있는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인간 인식입니다. 폭력과 착취로 유

지되었던 파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허울뿐인 평화의 가치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존귀하고 평등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의 개념을 일관되게 강조하셨습니다.

4) 독립선언문의 인간 인식: 남북의 공유 가치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또한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미 독립선언서를 통해 평등하고 존귀한 인간 이해를 함께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가 분열되기 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운 가치라는 데에 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분단 이전의 공통된 역사인식 속에서 우리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 → 신약 성경 → 우리의 역사로 이어지는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의 시작점이 우리와 다른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임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삶 속으로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통해 배운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탈북민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탈북민들의 문제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와 닿아 있습니다. 미래적인 통일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 그리고 무관심과 궁핍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존귀한 존재로 여김 받을 수 있을지, 이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탈북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고,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She Fled Famine in North Korea, Then Died Poor in a Prosperous Land



뉴욕 타임즈 뉴스기사

위 내용은 뉴욕 타임즈가 2019년 7월 31일 탈북민 모자가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아사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탈북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탈북민 모자가 그들이 살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죽었고, 더욱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두 달 넘게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뉴욕 타임즈는 “그녀는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고,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의 제목으로 본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 기사의 제목은 우리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문제는 바로 “무관심”과 “소외”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탈북자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자가 왜 안타깝게 죽어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남한의 복지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내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나갈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탈북자들이 “먼저 온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탈북자들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평화를 위한 인간 이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북민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소통해보기

사실 탈북민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고,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찾아보고, 공감하는 댓글이나 댓글을 달아 봅시다.

추천 유튜브 채널

장선비의 한양살이	아오지 언니TV
2019년에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장혁 씨가 운영하는 채널로 탈북의 과정과 남한에 정착 후 느낀 점들,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탈북하여 호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최금영씨가 운영하는 채널로 북한의 생활상과 남한 사회에 대해 느끼는 진솔한 생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TV - 북한의 것을 보다	탈북민 연극 '고슴도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탈북민들과의 흥미로운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연극으로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탈북민들의 아픔과 경험을 연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북한말로 일기 써 보기

우리가 탈북민을 만난다면 금방 대화가 가능할까요? 오랜 분단의 세월 동안 각자가 쓰는 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글동무(geuldongmu.org) 사이트에 접속하면 남북한어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일과를 이 번역기를 이용하여 북한말로 바꾸어서 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 활동들을 통해 느낀 소감은 어떻게 되시나요?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 서로가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감 활동을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탈북민들의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 그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탈북민들을 초청할 수 없다면,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메일과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발전한 북한말로 일기를 써 보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생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언어를 이해하고 써 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활동을 함께 해보고 그 느낌을 서로 나누어 보고, 본 과를 정리합니다.